



대전주보

2021년 사목지표

신앙과 삶이 하나되어 모두 한 형제로 걸어가는 공동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

2020.11.29~2021.11.27

발행 유흥식(제2610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전화 044 · 270 · 3000 팩스 044 · 270 · 3043
주소 30148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2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2021년 사제 수품자

권학순 요셉



덕명동본당

이제열 바실리오



세종성요한본당

박윤기 F. 하비에르



주교좌 대흥동본당

김대주 세례자 요한



신평본당

사제 수품을 축하합니다

주님 세례 축일 2021년 1월 10일(나해)

제1독서 이사 42,1-4,6-7

제2독서 사도 10,34-38

화답송

-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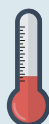
복음 마르 1,7-11

영성체송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9시 주모경 바치기



한끼100원나눔운동 2020년 사랑의 온도현황 58.9℃

2020년 총 모금액 589,436,282원

12.19~31 모금액 본당 10,076,717원 / 단체 및 개인 17,807,230원



함께 채우는 첫 단추



김정찬 사도요한
해미성지 보좌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예비자들을 보며 괜히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첫영성체 교리가 막바지에 이르면 ‘잘고’를 해야 하는데 넘어서 할 이 산은 아이들뿐만이 아닌 어른 예비자 교리반에도 예외없이 매우 높은 산입니다. 암기식 교육에 익숙지 않기 때문인데 담당 수녀님이 교리와 주요기도문 암기 상태를 확인하지만 주임신부님 앞에서 대답하는 것 자체가 긴장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도문을 다 외우지 못하는 친구가 생겼는데, 당시 주임신부님의 불호령과 함께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모두가 통과할 때까지 2주간 연장했던 보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영성체 하면 이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물에 잠겨 숨 못 쉬는 고통의 시간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찾을 줄 알았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순수하고 까불기만 했던 어린 마음에 ‘세례 받기가 이렇게 힘든건가? 이럴 바엔 그만 두어야겠다!’, ‘연대책임은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인가?’ 당장의 아픔만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랑 같이 첫영성체 교리 받았던 친구들 중에 성당 다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리고 또 사목자로서 세례를 베풀고 준비하는 입장에 서 보니 나 혼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준비했던 주위의 모든 사람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노력을 비롯하여 교리교사와 봉사자, 수녀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오히려 더 컸음을,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커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은 후 대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닌 신앙의 첫 단추라 말할 수 있는 ‘세례성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준비하는 기간이라 말할 수 있는 첫영성체 교리, 예비자 교리 기간이 은총의 시간임을 준비하는 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은 세례자 요한과 성령의 비둘기, 그리고 하느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세례를 중심으로 주변에 배치된 모습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관용을 빙자하여 남용되는 세례가 아닌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했던 세례 때의 다짐을 되새겨보며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절박했던 시기에 신앙의 선조들은 어쩌면 준비된 세례만으로도 순교의 삶에 동참했기에, 우리 역시도 이러한 모범을 따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895)
유판식 토마스





사회와 교회를 잇는 길잡이

사잇길

화해 이전에 이해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7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70년이면 너무 많은 변화가 남과 북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하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통일’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남과 북의 관계는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 서로 뭐가 그렇게 안 맞는 것일까? 통일은 그만두고 그냥 친하게 지내기만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일까?’ 단순히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족화해위원회에서 종종 강의를 들으면서 ‘친하게 지내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문제는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등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국제관계’라고 하죠. 국내정세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국제관계까지 끼어드니 쉽게 화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애들 싸움은 애들끼리 화해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어른 싸움으로 번

지면 점점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법정까지 갈 수도 있죠. 남북관계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북한과 통일을 하면 뭐가 어렵고, 어떤 손해가 있고,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고, 북한이 계속 잘못하고...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는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서로 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지, 왜 자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환경,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와 맞고 맞지 않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화해와 일치,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족의 화해가 이러한 이해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그 순간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국일호 대건안드레아 신부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01

| 주님세례축일 주간실천 |

스티로폼, 플라스틱 컵, 병, 칼, 스푼, 포크, 빨대 등 일회용 제품 사용하지 않기

www.djeco.or.kr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태환경위원회

전주교 대건교구

2021 사제 수품자 소감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순교를 앞둔 김대건 신부님 말씀 中)

권학순 요셉

첫미사 1.13(수) 오전 10:30, 덕명동성당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루카 17,10)

사제 성소를 걷어가는 여정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지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이웃을 위해 마땅히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에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라고 응답합니다. ‘쓸모없는 종’은 칭찬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종입니다. 사제의 삶 속에서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는 저의 진실한 응답을 통해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맡겨진 직무에 대해 감사함을 알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실천하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이를 위해 내어주시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 백성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열 바실리오

첫미사 1.13(수) 오전 10:30, 세종성요한성당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마르 14,22)

하느님께서 질그릇 같은 제 안에 엄청난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받아라.” 하시면서 아무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이는 내 몸이다.” 하시면서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당신을 남김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함부로 가늠할 수도 없는 커다란 사랑에 안겨 거룩한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합니다. 특별히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가정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께 전구를 청하며 부르심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기도를 청합니다. 많은 피조물이 고통에 신음하는 시대에, 예수님을 닮은 착한 목자로 살아가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윤기 F. 하비에르

첫미사 1.13(수) 오전 10:00, 주교좌 대흥동성당

“내가 받을 몫과 상속 재산은 바로 나다.”
(민수 18,20)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부족한 저를 당신의 사제직에 불러 주시고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길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느님이 아닌 것에 의지하려 했고, 그것을 하느님인 줄로 착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제 마음 속 깊이 “내가 받을 몫과 상속 재산은 바로 나다.”(민수 18,20)라는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며, 당신이 제 전부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면서 기쁨이 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겸손한 사제로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주 세례자 요한

첫미사 1.13(수) 오전 10:30, 신평성당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루카 24,15)

찬미 예수님! 김대주 세례자 요한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사제로 불러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의 길은 매우 기쁜 여정이었지만, 가끔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함께 걸어준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제 마음을 다시 타오르게 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많은 분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여정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함께 걷고 계신다는 걸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제 마음에 새겨 주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는 말씀을 잊지 않고 몸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박의 종류와 도박에 빠지는 계기

‘돈이나 가치있는 어떤 것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것’을 도박이라고 합니다.

도박은 크게 합법과 불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강원랜드,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복권 등 국가가 조세나 기금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을 합법 도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온라인 바카라, 바다이야기, 화투, 포커, 불법 스포츠토토, 네임드사다리 등등 사행산업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불법 도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과 불법 도박에 분류가 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주식 거래 역시 도박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원랜드, 경마 등 특정 장소에 가서 하는 도박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스포츠토토’, ‘네임드사다리’, ‘바카라 도박’ 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스포츠토토’는 스포츠 경기에 승부를 예측하여 베팅을 거는 도박입니다. 국내, 국외 모든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박 중독이 심해지면 아프리카 지역의 핸드볼 게임에도 베팅을 걸게 됩

니다. ‘네임드사다리’나 ‘온라인바카라’는 1분에 최대 천만 원까지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과 30분 안에도 큰 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도박은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기심이나 여가 생활 중의 하나로 도박을 접합니다. 정서적 결핍이나 과도한 승부욕, 돈에 집착이 심한 사람이 도박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도박을 접했던 초창기에 대박경험, 즉 한 번에 큰 돈을 따본 사람은 현재 빚을 내어 도박을 하고 있더라도 한 방에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도박에서 헤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과도하게 온라인 게임을 한 사람도 일반 사람보다 더 쉽게 도박에 빠져듭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의하면 도박은 유전된다고 합니다. 도박 중독자 직계 가족의 11%가 도박 중독자이며, 도박 중독이 될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 8배가 높다고 합니다.

다음 회차에는 ‘도박 중독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김형석(프란치스코) 중독 치료 사례 관리사

도박문제해결 : 단도박모임(02-521-2141), 도박문제관리센터 헬프라인(1336)

아뉴스데이 글·그림 이순구(베네딕도)

탁한 생각 행귀 내고
말강게 씻어 내어
촘촘한 벌에 말린
내 영혼
한 뒷박.

하느님 고맙습니다!



알립니다

김인호(루카) 사제 모친 선종

김인호(루카) 사제의 모친 양옥자(루시아, 향년 80세)님께서 2020년 12월 21일(월) 선종하셨습니다.
장례미사는 12월 23일(수) 봉헌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원무(베다) 사제 모친 선종

이원무(베다) 사제의 모친 박은숙(아나스 타시아, 향년 89세)님께서 2020년 12월 29일(화) 선종하셨습니다.
장례미사는 12월 31일(목) 봉헌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답사목

장애인 사목부 이용자 모집

- 대상 : 시각, 지체, 발달장애인, 농아인
- 내용 : 미사, 성경공부, 레지오, 수화동아리, 수화교실, 주일학교(발달장애)운영
- 문의 : (042)637-1838 장애인사목부

선택주말

- 코로나19로 인하여 제92차 선택주말 취소
- 문의 : (042)256-5487-8 가정사목부
- 홈페이지 : <http://familia.djcatholic.or.kr>

카나혼인강좌

- 카나혼인강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
- 문의 : 가정사목부 (042)256-5487-8
- 인터넷검색창 :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http://familia.djcatholic.co.krkr>

제12차 약혼자주말

- 때 : 1.29(금) 20:00~31(주일) 17:00
- 곳 : 부강 엠마우스 피정의 집
- 대상 :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혼인강좌 수료 증수여), 혼인 2년 미만 신혼부부
- 수강료 : 1인 1만원
- 문의 : 가정사목부 (042)256-5487-8 <http://familia.djcatholic.co.krkr>

젊은이 성령 기도회

- 때 · 곳 : 매주 화 20:00, 새얼센터
- 대상 : 젊은이 누구나 참여가능
- 문의 : (042)824-6773 아자리아 선교단
- #아자리아 선교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azariah_1985) 참조
- #마스크 착용 필수

치유미사

- 때 · 곳 : 매주 화 14:00, 새얼센터
- 내용 : 미사, 치유기도(영적, 내적, 외적) 등
- 문의 : (042)824-6771 교구 성령새신봉사회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 치매안심병동 운영
- 신경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 주일 · 평일 미사 및 봉성체
- 문의 : (041)950-1008

[온라인]성서사실주간 읽기 안내-구역2

- 때 : 1.26~4.27 매주 화 20:00
- 신청 : 가톨릭성서모임홈페이지(biblemove.com)-온라인 성경공부로 신청
- 수강료 : 3만원 / 교재비 별도
- 하나은행 823-910225-88907 이애리
- 수강신청과 입금 확인 후 수강 승인됨
- 문의 : 가톨릭성서모임 010-4628-4250

영성강좌(원로사제들의 영성 나눔 시간) 저녁반

- 내용 : 영성의 향기
- 때 : 3.2~6.15(15주간) 매주 화 19:30~21:30
- 곳 : 유성갑동사제관 내 성당
- 대상 : 성인 신자 누구나 / 신청순 30명
- 신청 : 네이버 블로그 '갑동 사제관'
- 강사 : 김영교 신부, 박재만 신부, 강석준 신부

2021학년도 대전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입생 모집

- 때 : 1.29(금) 16:00 까지 / 면접일 : 1.30(토)
- 홈페이지 과정별 모집 요강 확인 필요
- www.dccatholic.ac.kr 평생교육원 제출서류 다운 후 작성 및 발송
- 문의 : (044)861-7230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비밀, 무료상담)

- 가정문제 부부갈등, 자녀문제, 가정폭력, 가정법률 그 외 기타(심리검사)
- 상담방법 : 전화, 면접, 서신(Fax 포함)
- E-mail: domestic-vc@hanmail.net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 문의 : (042)636-2033~4, Fax 636-2035

대전가톨릭 나눔의전화(무료상담)

- 이용시간 : 월~금 10:00~17:00
- 무료상담 : 인생, 가정, 청소년, 신앙, 법률
- 문의 : (042)222-8844

노인 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둔산동 삼천교 네거리 부근
- 방법 : 내방, 방문 상담 www.dj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2021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 대상 :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 내용 : 가톨릭 신학 26과목
- 원서접수 : 2.10(수)까지(우편신청가능)
- 문의 : (02)745-8339
- 홈페이지 :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2021학년도 가톨릭관동대학교 정시모집

- 모집 : 1.7(목)~11(일)
- 의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의료융합대학, 항공대학,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예술대학, 관광스포츠대학
- 2022학년도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의학과, 간호학과 모집
- 문의 : (033)649-7000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상담대학원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 추가 모집

- 접수 : 1.4(월)~12(화)
- 모집전공 :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카리타스학
- 특전 : 직장인, 수도자 등 장학혜택 다수
- 문의 : (043)270-0131, 0167

부산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 원서접수 : 1.7(목) 09:00~11(일) 18:00
- 모집학과 :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 선발인원은 홈페이지(ipsi.cupac.kr) 참조
- 전형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
- 담당 : 입학관리부 김충진(모세) (051)510-0702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 대상 : 15세 이상 남 / (02)828-3600
- 내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 기간 : 2021.2~12(월) 예비학교
- 혜택 :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9.2%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모집

- 과정 : 입문, 중급, 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 방법 :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 원서 : <http://uus.pauline.or.kr> / 1.31(주일) 마감
- 문의 : (02)944-0819~24, 010-5584-8945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온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행복나눔 이사 사무실 이사, 포장 일반 이사 이종수(야고보) 김영숙(실비아) T. 1877-9924, 010-6671-2489	세종성모내과 내분비 질환 증진치료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인빌딩 4층(환경부 앞) T. (044)905-0606 원장 이광우 도미니교	이광우 치과 원장 이광우 타데오 타임월드 별관 2층 T. (042)483-7528, 489-7528	광고 모집 (042)257-0190
척추 · 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 · 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이바르게 치과교정과 치과 원장 : 홍성규(미카엘) 교정전문 브라켓없는 3D 디지털투명교정 이바르게가 함께합니다(1996개원)	비로세움병원 척추 · 관절 집중치료 서울아산병원 출신 황인석 대표원장, 김경호(요한)원장, 김재현(필립)원장 외 5명 합진 (042)489-8888 대전 서구 둔산남로107	맑은눈 안과 라식, 라섹, 노안, 백내장 T. (042)476-0075 정부청사역 4번 출구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제이와이피클로보(주) 의료내시경 수리 및 소모품 일체 이주형(사도요한) 대표 T. 010-2930-7259 www.medironjip.com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대전베스트정형외과 척추, 관절, 외상 전문 대표원장 양준영(가롤로) 전충남의대 교수 T. (042)345-7700 유성구 병명동 604-1	에스티 피부과 (전 을지대 교수 / 현 충남의대 외래교수) 김윤동(사도요한) 롯데백화점 옆 T. (042)535-5800

순교자현양회 정기도보순례

-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조치연장으로 인하여 1월 정기도보순례 취소

 수도회 및 피정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 때 : 1.16(토) 14:00
- 곳 : 개화동 수도원(서울)
- 문의 : 010-3800-1579

토아울람 후원회 금요 치유 피정

- 때 : 매달 셋째 주 금 12:30~16:00
- 곳 : 대전가톨릭문화회관 4층
- 담당사제 : 김중국 신부
- 문의 : 010-5933-3734 지구장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 대상 :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 문의 : 성소국장 010-8715-2846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성소모임

- 때 : 1.17(주일) 13:30~16:30
- 곳 :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미아리본원)
- 문의 : 010-9816-0072 pddm.or.kr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심리상담 센터

- 심리 상담(개인, 부부, 가족)
- 문의 : 010-5784-8585
- 모래놀이 치료(아동, 청소년, 성인)
- 문의 : 010-3488-6765
- 곳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성모여고 내)



2021년 대전교구 사제 서품식

- 일시 : 2021년 1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솔뫼성지(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관)
- 주례 : 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



사제 서품식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TV를 통해 생중계 됩니다. 또한, 당일 교구 유튜브 채널, 교구 홈페이지(<https://www.djcatholic.or.kr>)에 접속하시면 사제 서품식 중계를 볼 수 있습니다. 대전가톨릭평화방송(FM 106.3Mhz) 라디오를 통해서도 청취 가능합니다.

산내 · 성환공원묘원 봉안(납골)담 분양 안내

◎ 가격

- 1인실 사용료 2,500,000원(산내)
3,500,000원(성환)
- 관리비는 20년간 500,000원

◎ 문의

- (042)630-7734 교구청 관리국
- (041)546-7265 성환묘원 사무실



조앤 수녀님의 동물 친구들

조앤 치티스터 수녀 / 임정희 옮김 / 144쪽 / 가톨릭출판사 / 13,000원



키우고 있는 동물들의 눈을 바라본 적 있으신지요? 주인을 향한 사랑과 즐거움이 가득 담긴 눈동자, 이 책은 40년 넘게 교회 쇠신과 영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저술과 강연을 하고 있는 저자가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살게 된 개와 앵무새에게서 얻은 깨달음을 재미있고 잔잔하게 풀어놓습니다. 침대에서 자는 걸 놓고 씨름한 이야기, 수녀원에 있던 수족관을 넘어트릴 뻔한 이야기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에서 깨달은 점을 우리의 일상과 연결해 주변의 소소한 것들이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캠벨피부과병원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042)471-7575	대형환경(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철거공사·순환 골재 및 토사생산) 계통, C 인근 T. (041)732-0620 대표 강희권 올리오	이안과병원 전문분야별 6인진료 T. (042)220-5500	베타니아 성물센터 목주반지, 전례복, 전례용품 국내외 성물 T. (042)226-8980	한강 외과 치질, 대장내시경, 외과수술 김성철(대철베드로) 오릉역 2번 출구 T. (042)523-9856
구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원장 구마량(헬레나) 롯데백화점 건너편 T. (042)532-7009	효안과 (전, 눈빛안과) 노안 · 백내장 · 라식 · 라섹 이효(바오로) T. (042)486-5050 둔산동 1110번지 8층 경성큰마을 사거리	대전성모안과 원장·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플랜트 치과 손외수 대표원장, 양찬영(스테파노), 김명균(바오로) 원장 외 20명 의사 협진 T. (042)825-2275 유성 홈플러스 옆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교구장 동정

1월 11일(월)~17일(주일)

- 1월 12일(화) - 사제서품식 (솔미성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기념성당 및 기념관 10:30)
- 참사회의 (솔미성지 14:00)

교구 기관 및 본당 공동체 소식

자세한 내용은 대전교구 홈페이지(www.dj cathol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주순교성지, 홍성군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기탁



홍주순교성지(전담 최교성 신부)는 12월 22일(화) 홍성군청 군수실에서 홍성군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5,000만 원으로 교구장 유홍식 라자로 주교와 김석환 홍성군수, 최교성 신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됐다.

최교성 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경제가 지속해서 침체되고 있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했다.

홍성군은 이날 전달된 성금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사랑의 나눔 2차 현금 전달식



교구는 12월 24일(목) 교구장 집무실에서 '사랑의 나눔 2차 현금 전달식'을 했다.

지난 대림 제1주일인 11월 29일에 모금된 2차 현금 은 문화동본당(주임 허병도 신부)과 사회사목국(국장 나봉균 신부)에 전달됐다.

천안불당동본당 지구살리기 공모전 시상



천안불당동본당(주임 맹상학 신부)은 12월 20일(주일) 지구살리기 공모전 시상식을 했다.

본당 생태환경가정분과 주관으로 초등부는 포스터와 소품, 중고등부는 동영상, 성인부는 생활수기로 각각 진행된 지구살리기 공모전은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의 시상식을 했다.

서산예천동본당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비대면 영상미사



서산예천동본당(주임 허웅 신부)은 12월 25일(금)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를 비대면으로 봉헌했다.

성당 마당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차 안에서 교우들이 미사를 참례하는 방식으로 봉헌된 이날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의 영성체는 교우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톨릭평화방송 TV로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를 시청한 교우를 위해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성당 마당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성체를 모시게 했다.